


국방일보

 프린트하기

## 국방시설본부-한국건설교통신기술協 MOU


기사입력 2019. 03. 20 17:26

국방시설본부는 20일 민간 부문의 건설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고품질 군사시설 발전을 위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KCNET)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방시설본부 청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두 기관의 주요 직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정기 신기술 세미나(토론회) 개최, 기술 마켓 운영, 국방 건설기술 발전 자문 등 상호 협력·상생하자는 취지로 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교류협력을 활발히 펼쳐 군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린트하기

취소하기

## 국방시설본부,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 고품질 군시설물 기술 발전 견인

☎ 하종숙 기자 | Ⓞ 승인 2019.03.20 17:17

| 20일 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MOU 체결... 상생협력 강화

기술마켓 운영·신기술 활용 통한 국방건설기술 발전 기술자문 등 협력☒  
 김재봉 본부장 “설계·시공·유지관리, 검증된 신기술 적용 확대 만전”



국방시설본부 김재봉 본부장과 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이 업무협약 후 양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방시설본부(본부장 김재봉 육군준장)가 고품질 국방시설 발전을 위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와 손잡고 건설신기술 개발 촉진 등에 나선다.

국방시설본부 김재봉 본부장과 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20일 국방시설본부대회의실에서 MOU를 체결, 상호 협력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와 건설교통기술협회는 ▲정기적인 신기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기술마켓 운영 ▲신기술 활용을 통한 국방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자문 등 상호협력으로 상생과 기술발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방시설본부 김재봉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기술마켓을 운영, 공법선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설계.시공.유지관리의 검증된 신기술 적용을 위한 Pool로 활용하겠다”며 “고 설명했다.

국방시설본부 김재봉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기술마켓을 운영, 공법선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설계.시공.유지관리의 검증된 신기술 적용을 위한 Pool로 활용하겠다”고 “고품질 국방시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국방시설본부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 상생 활동과 교류를 통해 軍의 건설관련 설계와 시공 등에서 신기술 적용 활성화는 물론 국가 예산절감과 함께 軍 건설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올해는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지 30주년을 맞아 뜻 깊은 해로 국방시설본부와의 MOU 체결은 의미가 강조된다”며 “앞으로 국방시설사업에 일익,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종숙 기자